

주간 증시 포커스

1분기 기업 실적 본격화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눈 대북관련주·반도체 주목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하고 GDP대비 경상수지 감축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압박하면서 주 초반 코스피지수는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보였다.

또 4월 미국입학회가 종료되며 신약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최근 몇년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시밀러와 신약관련주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중소형주 시장의 바이오버블, 시장 건전성 심하게 훼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늬만 바이오주와 작전세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시장에 큰 이슈가 됐고 급등했던 제약바이오주가 급락하고 변동성이 확대됐다.

제약·바이오주는 단기급락에 따라 반등은 있었지만 당분간 숨고르기가 예상되며 미국입학회는 전입생 중심인데 비해 6월에 예정된 미국입상중앙학회(ASCO)은 임상 1상부터 3상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ASCO가 다가오면 다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아베 신조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남북한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순식간에 높아졌다.

이후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북관련주가 시장에 중심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국 내 정치적 이슈에 머물렀는데 북·미 교류에 대한 기대까지 높아지면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교류확대 기대감으로 건설·건설장비·시멘트·개성공단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주말 김정은위원장은 노동당 정무원회의를 열어 '21일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비핵화카드를 통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반주는 김정은 위원장 발표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급등한 중소형주는 언론보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주로 종목확산도 가능해 보여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또 1분기 기업실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에 이어 한국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1분기 양호한 실적과 2분기 모멘텀이 존재하는 반도체, 중국관련 소비재주와 함께 거래량증가로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증권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광주·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망 밝다

1분기 수출액 12만달러 전년비 22% 증가 역대 최고치 파프리카·배 일본 수출 늘고 김은 태국·미국 수출 급증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에서 자란 농수산물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전체적인 수출전망을 밝게 비추고 있다.

22일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성남)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12만7578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4254달러에 비해 22.4% 증가한 수치로, 역대 1분기 중에서는 최고

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1분기 국내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221만7000만 달러)의 증가율 4.4%보다 무려 18%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파프리카의 경우 일본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단기도 오르면서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본 현지 배추가 수급 불안을 겪으며 전남지역 배추의 수출이 급증했다.



전남 쌀 '풍광수도' 홈쇼핑 통해 전국에 이름 알렸다

전남농협·전남도, 1134세트 판매

수도권 소비자 55% ... 공략 성공

8·9·11월에도 전남쌀 홍보하기로

전남농협의 쌀 공동브랜드 '풍광수도'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이름을 알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2일 전남도(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와 함께 ㈜공영홈쇼핑(아임쇼핑)에서 쌀 공동브랜드 '풍광수도'를 전국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첫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을 통해 당초 목표 물량이었던 1000세트(10kg×2포)를 뛰어넘는 5900만원 상당의 1134세트를 판매했다.

서울·경기지역 거주 고객이 55%에 달하는 등 첫 홈쇼핑 방송으로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에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전남농협과 전남도는 올해 전남지역 브랜드 쌀의 판로확보를 위해 릴레이 공영홈쇼핑 방송을 4



회 기획했다. 풍광수도 첫 방송 이후 오는 8월 '보성농차미인쌀', 9월 '영광해뜨지쌀', 11월 '달마지쌀' 순으로 방송을 진행해 전남지역 쌀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홈쇼핑 판매는 편리하게 구매를 희망하는 전국 고객에게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홍보·판매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판로다"며 "우수한 품질의 지역 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판로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협 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도는 '신동진' 단일 품종으로, 올해 홈쇼핑 판매를 비롯해 대형마트와 부산·울산·경남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여기에 나주지역 특산물인 배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생산량이 급증한 탓에 저장물량을 수출전환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농산물 수출액은 6만7253달러로 전년 5만9967달러에 비해 31.9%가 늘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외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단가가 오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중단됐던 수출이 재개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aT 측 설명이다.

축산물은 1분기 1797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1416달러보다 26.9% 증가했고, 새싹 등 임산물의 경우 59%달러로 역시 전년 5402달러보다 11% 증가했다.

수산물도 태국 현지에서 스낵용 김과 미국에서

는 조미김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확대, 5만2532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4만6440달러보다 13.1%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주류에서도 지역광주 OB맥주가 일본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 OB맥주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만940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867달러보다 무려 39.9%나 증가했다.

정성남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농가소득과 직결된 파프리카, 배 등 신선농산물 수출증가가 고무적이다"며 "수출물류비, 수출보험 등 지원 외 수출국의 통관·법률·관세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아세안지역 수출확대를 도와 수출증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센터, 전남대·군산대와 해양인재 육성 협약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해양대학 학장실에서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군산대 해양과학대학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최상덕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학장, 김명준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학장 등과 센터, 각 대학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대와 군산대는 양식, 수산식품 가공 등의 분야에서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수산해양 전공 졸업생(예정자)을 선발하고, 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양식 기술이전

및 원스톱 취업·창업 지원에 나서게 된다. 센터는 오는 5월까지 명단을 건네받아 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구성 등을 마친 후 본격적인 '바다 개척자(Sea Frontier)' 양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타 학술행사 및 산학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최상덕 학장은 "군산대, 센터와 함께 해양수산업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호남의 대표 대학과 센터의 협력체제 구축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 제공=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농협 광주본부 '2018 사고예방 감사 워크숍'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 20일 농협변산보험수련원에서 광주관내 지역농협 감사팀과 광주검사국 검사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사고예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사고예방 워크숍에서는 최근 주요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및 내부통제제도 강

화의 필요성과 올해 감사방향이 담긴 '5대 핵심과제'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재연 광주검사국장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신뢰받는 건전 농·축협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보청기 무료 체험' (Hearing Aid Free Trial) by Chahanbocheonggyeongdongjoahp. Includes phone numbers 062) 655-6544 and 062) 362-3336, and addresses in Sanseo and Dolgoe.

Advertisement for '방수 부분설비(누수)' (Waterproofing partial equipment) by Chilman. Includes phone numbers 062) 676-7719 and 061) 375-7719, and a website URL.